

사회 경력을 시작 하기 전

대학에서 갖출 품성 교육

홍승녀 | (주)피앤이컨설팅 대표이사

대학 졸업을 앞둔 대다수 학생들이 열중하는 것 가운데에는, 영어 혹은 언어연수, 자격증, 기업체 인턴십, 해외유학, 봉사활동 등 과거와 비교하여 훨씬 다양하고 적극적이다. 한국의 역동적인 기운이 젊은 층의 고뇌와 도전에서 비롯됨을 오랜 기간 실감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산업체 각기 다른 인제상과 채용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력의 출발선상에 서 있는 학생들 뒤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대학을 향해 얼핏 평범해 보이는 몇 줄을 통해 응원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현상은 '기업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너나 할 것 없으며 특히 한국은 더욱 심하여, 문자 그대로 '역량 갖추기(스펙 쌓기)'를 위한 노력으로 바쁜 모습들이다. 그러나 경력을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경력도전에 실패하는 '미완성 인재'들을 보면, 그 실패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품성(자질)'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자주 발견하게 되기에, 본 글은 필자가 평소 강의하는 '경력관리' 측면이 아닌, 대개가 간과 하지만 이후 조직행동으로 들어나는, 스펙 쌓기 못지 않은 중요한 기본 품성을 들어, 향후 대학의 집중적 관심과 교육을 기대해 본다.

흔히 국내 명문대학이나 유명 해외대학 출신, 혹은 우수한 학교 성적을 무기로 유리한 경력 출발을 한 이들이, 이후 사회생활과 기업 혹은 조직 안에서 그렇다고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스펙' 외에, 보이지 않는 '품성'과, 핵가족 시대 자신의 좁은 틀에 갇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미완성 인재'로 남는다는 것이다. 학력·경력을 초월하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새삼스럽다.

품성은 기업체에서 인성교육, 직업훈련, 리더십교육 등을 통해 거듭나기도 하지만, 개인은 가정교육 외에는, 중학교 성적에 집착하고 대학시절 '스펙 쌓기'에 밀리면서 품성교육이 간과 되고, 대학을 거치는 사이 굳어지고 고정되어 쉽게 고치기 어려워진다. 하여, 대학이 아래 네 가지 품성교육을 좀 더 집중 함양해 줌으로써, 젊은이들이 바람직한 integrity를 겸비하고 대학문을 출발하기를 바라본다.

첫째, 셀프리더십을 더욱 함양해 준다. 이는 사회로 나아가 기업에 입사하여 조직의 어려운 목표를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데 필수적인 출발 품성으로, 팀리더십으로 성장하는

Higher Education 2011_11+12

역량의 기반이 된다. 대학에서 셀프리더십이 되어서 나와야 스스로 원칙을 알려 절제하고 남을 설득하는 힘도 길러져 팀 리더십이 생기며, 셀프리더십은 넓은 글로벌 무대에서 스스로 적응하여 생존하고, 세상의 크고 작은 파도에 덜 흔들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 스스로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

둘째, 남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더욱 일깨워준다. 당연해 보이는 작은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임을 대학시절 깨닫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어느 사람도 주변 도움 없이 혼자 크는 사람이 없거늘, 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은 자칫 자신만이 중요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교만한 '미완성인재'로 남아 경력관리에 실패할 수 있다.

셋째, 겸손한 마음을 길러준다. 겸손한 마음은 겸손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핵가족 시대 인터넷과 사이버 세상에 빠져, 거침없이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행동대로 해서 남과 함께하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작은 성공에 만족하여 멀리 보지 못함은, 더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하여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힘을 주지 못한다.

넷째, 세상을 향해 더 큰 열린 마음을 갖도록 길러준다. 자기중심적 사고방식과 닫힌 마음은, 화려한 학력·경력을 뒤로하고 훗날 스스로와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누구와 무엇을 해도 부딪히고 스스로를 행복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존심보다는 자긍심으로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품어 안을 수 있다.

결국, 조금 더 '나'를 내려놓고 열어 비우면 '남'을 내 그릇에 담을 수 있게 되고, 함께하면서 더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음에, 대학은 상기 기본적인 품성교육을 병행해 줌으로써, 졸업생들이 사회생활에서 더 큰 기여와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미래 사회 더 큰 공헌을 해주기를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대한다.



고려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인사조직관리를 전공하였다. 주한 미 대사관/ATO소속 AF&PA-Korea/Assistant Director, 뉴욕은행, 서울 및 캘리포니아은행, 서울/Credit&Marketing-Int'l Banking Group, 한국 여성경제인협회/교육산업분과위원장, 한국 여성벤처협회/이사, 아시아 개발도상국 여성기업 양성기 프로그램(유엔+한국정부)/한국대표 아태지역 여성기업가 포럼/한국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주한 캐나다 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부 및 관련기관 심사, 면접 전문위원(행인부) 및 (주)P&E 컨설팅 대표로 활동 중이다.